[붙임]

제2회 아이들극장 예술상<2023 종로 가족공연축제> 심의결과

□ 심의개요

○ 접수기간: 2023. 1. 25.(수) ~ 2. 3.(금) 18:00까지

○ 심의일시: (1차) 2023. 2. 15.(수) 14:00 / (2차) 2. 22.(수) 15:00

○ 심의장소: 아이들극장 회의실

□ 심의위원회 운영

번호	성명	소속 및 직책
1	김경태	종로문화재단 공연사업팀장
2	김영배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부이사장
3	정유란	㈜문화아이콘 대표, 前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이사
4	최지영	한국교육연극학회 회장

※가나다순 배열

□ 심사평

<2023 종로 가족공연축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된 제2회 아이들극장 예술상 작품공모에는 총 62개의 공연이 참가 신청을 했다. 뮤지컬 및 연극 장르에 속하는 인형극, 오브제 음악극, 연희극, 비언어극 등 외에도, 클래식 음악공연, 마술공연, 서커스, 댄스스포츠, 스트리트댄스 등을 가미한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신청하며, 어린이 대상 공연의 외연이 매우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회 예술상은 <가족공연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통합적 예술성, 공연형식의 심미적 수준, 제작/연희/연주의 전문성, 무대요소의 시각 예술적 관점이라는 심사기준과 함께, 어린이 및 가족 대상 관객들의 몰입과 소통을 담보해낼 수 있는 공연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어린이대상 공연의 외연이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1차원적인 장면만들기의 나열, 서사와 맥락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연주와 공연, 섬세한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는 볼거리 위주의 공연, 개념없는 영상, 움직임, 음악의 짜깁기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현 공연계의 민낯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선정된 5개의 작품을 통해 가족 공연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순)

첫 번째 선정작인 '북극곰 이야기'는 창작연희극으로 2명의 배우와 2명의 악사로 구성한 공연이다. 특히 중심배우의 신체와 오브제를 다양하게 융합하는 신체탈극의 재미, '해설자'역할의 배우를 내세워 현재의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이야기 안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지점이 흥미로왔다.

두 번째 선정작인 '그것 참 좋다'는 방정환 원작의 '의좋은 내외'를 각색한 작품으로서, 1인 테이블 인형극이다. 일상의 도구와 폐품들(종이상자, 페트병, 고무장갑, 헤어드라이어 등)이 재조합되며 눈앞에서 변형되는 재미 속에서 이야기를 끌고가는 역동이 뛰어난 작품이다. 또한 서울사투리가 가지는 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

세 번째 선정작인 '세친구'는 중앙아시아 카자흐 유목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인형극공연이다. 4각의 박스형 무대를 기본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동물인형들과 해 등 자연물들을 상징하는 소품들 그리고 3명의 배우가 함께, 유쾌하면서도 섬세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작품이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자연과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네 번째 선정작은 ‘배꼽잡는 슬로우’로, 전통 판소리에 뮤지컬 형식과 영상을 융합해낸 볼거리 가득한 작품이다. 이야기꾼이자 노래꾼이 대화를 이어가며 관객들과의 거리를 좁혀내면서, 공연의 몰입과 소통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섬세한 감정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과는 대비되는, 캐릭터화된 인물의 움직임과 알록달록한 소품, 무대장치 등의 역동적인 볼거리를 통해 관객들의 흥미를 잡아낼 수 있는 나름의 완성도를 지향하고 있다.

마지막 선정작은 ‘나와 몬스터 그리고 가방’이다. 이 작품은 장애아동 대상 예술교육 수업을 모티브로 예술교육의 스펙트럼이 극장공연으로 확장된 작품이다. 타악으로 구성된 라이브 연주, 아크로바틱, 마임 등으로 구성된 움직임들, 몬스터로 상징화된 다양한 오브제들, 오브제 재료들이 가지는 다양한 물성의 탐색과 공간으로의 확장 등 어린이의 내면세계를 다양한 연극적 요소로 구현해낸 지점에 주목하게 된다.

어린이성이란 ‘지금, 바로 여기’에 몰입하며, ‘지금, 바로 여기’의 요소들을 수용해 내는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에 선정된 <2023 종로 가족공연축제>를 통해, 어린이를 포함하는 가족 대상 공연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야 할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관객들과 함께 찾아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아이들극장 예술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연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역량 있는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5년 이내 아이들극장에서 공연되지 못했던 작품들을 우선하여 선정했음을 함께 밝힌다.